



사랑하다

질문하다

감탄하다

음미하다

초등생을 위한
지식과 생각의 학교 ♥ 철학

대답 알고 질문

로레나 에레라 글
조셀린 페레즈 그림
임수민, 조민경 옮김

믿다

찾다

느리_ㅁ보

함께하다

만들다

바라보다

독후활동지

Chapter 1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지. 바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는 학문이 철학이야. 철학과 친해지려면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 이 장에서 세바스찬이 남긴 질문에 답을 해보고, 같은 질문을 친구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해보자.

질문 1. 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넌 어떤 이름을 갖고 싶니? 그 이유는 뭐니?

질문 2.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일까? 음악가일까? 수학자일까? 아니면 그 모두일까?

인물 탐구

이 장에 등장하는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물로 '철학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야. 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 종교 지도자, 8음계를 창안한 음악가, 코스모스(우주)라는 단어의 창시자, 천문학자, 과학자이기도 하지. 피타고라스가 이룬 업적에 대해 찾아서 정리해 보자.

Chapter 2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똑똑한 거라고?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은 자연철학으로, 그 이후는 인간을 탐구하는 소크라틱스로 나뉘지.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어. 즉,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인지하고, 끝없이 질문하고 숙고하며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야.

이렇게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단어가 이 장에 등장해. 이 단어는 무엇일까?

Chapter 2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찾아보고 각 인물의 주장을 스스로 정리해 봐.

프리드리히 니체

존 케이지

소크라테스

Chapter 3 보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플라톤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그는 이데아론을 주장했어. 이데아는 현상 세계 밖의 세상으로 모든 사물의 근원이자 본질이라고 했어. 이데아는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진실이라면서 동굴의 비유로 이데아를 설명했지. 진실을 찾으려면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해. 인간은 스스로 만든 헛된 믿음으로 자신만의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살지. 너도 너만의 동굴이 있니? 세바스찬은 물을 무서워했지만 수영을 가장 좋아하게 됐어. 세바스찬처럼 네가 탈출한 동굴이 있다면 얘기해 줄래?

인물 탐구

플라톤에 대해 찾아보자.

Chapter 4 운명이 우리를 만드는 걸까?

우리는 모두 선택의 자유가 있어.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하고 싶은 것을 금지당한 경험이 있니?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페미니즘 운동을 펼쳤어.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세바스찬처럼 너의 자유를 빼긴 경험을 적고, 그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봐.

자유를 빼긴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

자유를 빼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은 경우

인물 탐구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 찾아보자.

Chapter 5 나도 하나의 우주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어. 이곳에 모여 논쟁을 벌이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갔지. 그 방식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어. 집회 또는 광장을 뜻하는 이 그리스어는 무엇일까?

모든 탐구는 나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하지. 세바스찬도 궁금한 것들을 노트에 끊임없이 적고는 답답한 마음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그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너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답을 들어잖아. 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니?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이해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경험이 있니?

Chapter 6

나는 질문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니?
여기에 그 질문들을 적어 물어보고, 사람들의 답변을 수집해 봐.
물론 네 생각도 적어보고 말이야.

인물 탐구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 찾아보자.

Chapter 7 초능력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돕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웠지. 사람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류에게 대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

너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 볼게.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넌 무엇을 바꾸고 싶어? 이 질문에 대한 네 답은 계속 바뀔 거야.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통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지금의 네 대답을 적어 봐.

Chapter 8 아름다운 공동체

타임캡슐에는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담아. 세바스찬은 자신의 질문이 가득 담긴 질문 노트를 넣었어. 딱 한 가지 물건만 담을 수 있다면, 넌 무엇을 담을 거야? 그 물건이 네게 소중한 이유도 알려 줘!